

Date: 2026.02.26

더페이지갤러리, 2026 년 첫 전시 《如, this is it》 개최

- 조선시대 백자 무늬 연적으로 잇는 동서의 미학: 최명영·박석원·박훈성·황정희, 그리고 로버트 라이먼·리차드 세라
- 서양의 미니멀리즘 거장, 로버트 라이먼(Robert Ryman)과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 한국 단색화의 대표작가 최명영, 박석원의 만남
- 박훈성, 황정희 작가 신작 첫 공개

전시제목	《如, this is it》
참여작가	최명영, 황정희, 박훈성, 박석원, 리차드 세라 (Richard Serra), 로버트 라이먼 (Robert Ryman) 총 6 인
출품작	조선시대 백자 무늬 연적 1 점과 작가 6 인 작품 27 점
전시기간	2026 년 2 월 26 일 (목) - 4 월 26 일 (일)
전시장소	더페이지갤러리 EAST 관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2 길 32-14)
문의	info@thepage-gallery.com 02 3447 0049

더페이지갤러리는 2026 년 첫 전시로 동서양의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서양의 미니멀리즘 거장과 한국의 단색화 작가를 한자리에 모은 단체전 《如(여), this is it》를 2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 개최한다. 전시는 조선시대 백자 무늬 연적부터 미국의 미니멀리즘 거장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 로버트 라이먼(Robert Ryman), 그리고 한국의 최명영, 황정희, 박훈성, 박석원 총 작가 6 인의 작품 27 점을 선보인다.

본 전시는 불교의 ‘여(如)’ 사상과 독일 출신의 고전주의 학자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섬세한 경험주의(Zarte Empirie)’에서 출발한다. 두 사유는 대상을 해석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며 현상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인식의 태도를 공유한다. 이는 세계를 설명하기보다 직접 경험하며 마주하려는 하나의 미학적 태도로 확장된다.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소개되는 조선 백자 무늬 연적은 이러한 미학의 원형적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흙과 유약, 불의 작용만으로 완성된 연적은 백색을 색채가 아닌 물질의 결과로 드러내며 절제와 제한을 통해 감각의 깊이를 확장한다. 반복과 비움 속에서 형성되는 이러한 미학적 구조는 서구 미니멀리즘과 한국 단색화가 물성과 정신의 교차점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계보적 흐름을 드러낸다. 무늬 연적은 단순한 기능적 사물을 넘어 동시대 미학의 근원적 원형으로 제시된다.

로버트 라이먼과 최명영의 백색은 색채를 제거한 공백이 아니라 존재가 조작 없이 드러나는 상태로서 ‘여(如)’를 구현한다. 라이먼이 빛과 표면의 현상을 통해 즉각적 현존을 드러낸다면, 최명영은 반복적 행위를 통해 수행적 시간의 축적으로 백색의 존재론을 완성한다.

리차드 세라와 박석원의 질량은 조형 요소를 넘어 존재 자체의 현현으로 작동하며 해석 이전에 몸으로 체감되는 ‘여(如)’의 물질적 실재를 드러낸다. 여기에 박훈성은 연필의 반복을 통해 평면에 새로운 공간의 깊이를 형성하고, 황정희는 미색의 면과 선으로 극도로 절제된 화면 속에서 자연스럽게 심연의 밀도와 감각의 진동을 구축해 나간다.

사물은 의미를 스스로 설명하지 않고 단지 존재하며, 관람자는 그것을 이해하기보다 경험해 나간다. 이처럼 단색화와 미니멀리즘은 형식적 유사성을 넘어 세계를 대하는 인식의 태도를 공유한다. ‘여(如)’는 인위적이고 과도한 표현을 덜어냄으로써 존재가 스스로 드러나는 순간을 허용하는 미학적 태도로서 예술이 현존의 경험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전시는 동서양의 철학과 현대 미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존재를 새롭게 감각하는 경험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 (알파벳 순)

Choi Myoung Young 최명영 (b.1941, Korea)

Hwang Jeong Hee 황정희 (b.1973, Korea)

Park Hoon Sung 박훈성 (b.1961, Korea)

Park Suk Won 박석원 (b.1942, Korea)

Richard Serra 리차드 세라 (1938-2024, US)

Robert Ryman 로버트 라이먼 (1930-2019, US)

White Porcelain Knee-shaped Water Dropper from Joseon Dynasty 조선 백자 무릎 연적

출품작 대표 이미지 7 개, 전시 전경 이미지 2 개



Choi Myoung Young 최명영 (b.1941, Korea)

Conditional Plane 24-10, 2024, Acrylic on canvas, 130 × 130 cm, Courtesy of The Page Gallery and the artist, Photo: Joel Morit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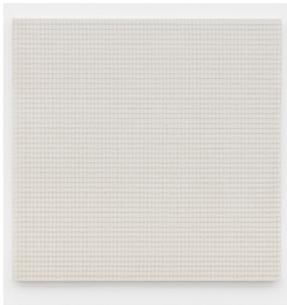
Hwang Jeong Hee 황정희 (b.1973, Korea)

Square 250302, 2025, Acrylic and graphite with linen, 91 × 91cm, Courtesy of The Page Gallery and the artist, Photo: Joel Moritz



Park Hoon Sung 박훈성 (b.1961, Korea)

The Black 2511-1, 2025, Oil on canvas, 130 × 130 cm, Courtesy of The Page Gallery and the artist, Photo: Joel Moritz



Park Suk Won 박석원 (b.1942, Korea)

Accumulation-2398, 2023, Korean paper on canvas, 130 × 130 cm, Courtesy of The Page Gallery and the artist, Photo: Joel Moritz



Richard Serra 리차드 세라 (1938-2024, US)

Elevational Weights (Planck), 2010, Paintstick on paper, 207 × 173 cm, Courtesy of The Page Gallery and the artist, Photo: Joel Moritz



Robert Ryman 로버트 라이먼 (1930-2019, US)

Drawing 79, 1979, Varathane and ink on steel panel with four round bolts, 44.5 × 36.8 cm, Courtesy of The Page Gallery and the artist, Photo: Joel Moritz



White Porcelain Knee-shaped Water Dropper from Joseon Dynasty 조선 백자 무릎 연적, 9.3 × 8.8 cm, Courtesy of The Page Gallery, Photo: Joel Moritz



Installation view of the exhibition, Courtesy of The Page Gallery, Photo: Joel Moritz



Installation view of the exhibition, Courtesy of The Page Gallery, Photo: Joel Moritz